

글로벌 정책추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일본, 2025. 10. 27.(월) ~ 10. 31.(금), 4박 5일)

시민회관체육운영처 여가체육부 김대호

[1일차-2025. 10. 27.(월)]

□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및 어반스포츠센터 방문

- 도쿄 어반스포츠 파크는 도쿄만 일대의 해안을 매립해 조성된 신생 부지 위에 건립되었다. 해당 지역은 원래 항만·물류 용도로 개발된 매립지였으나, 2020년 전후 도시재생 전략에 따라 문화·스포츠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었으며, 그 중심 시설중 하나가 바로 어반스포츠 파크이다.
- 주요 시설은 스케이트보드 파크, 3대3 농구 코트, 볼더링(실내암벽등반), 피클볼 코트, 익스트림 로프등으로 전문 선수와 일반 시민 및 청소년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운영함에 있어 특이한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소유하고, 전문 스포츠 운영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전문 기관에 위탁 함으로써 시설유지와 수익 사업의 다각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전문 스포츠 운영사는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기 위해 기업홍보를 외부 브랜드와 협업한 기획 행사나 스포츠 대회를 통해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2021년 도쿄올림픽에 사용된 스케이트 보드 경기장, 3대3 농구 코트 및 농구골대, 볼더링 코스등을 그대로 가져와 재현 하여 세계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인기가 많고, 올림픽 코스를 참여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여행자들에게 폭넓게 참여 토록 하여 올림픽 폐회 후 코트 및 구조물을 알맞게 재생하여 사용한 사례로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운영자에게 유리한 경영환경을 만든 우수 사례로 보여진다.



[2일차-2025. 10. 28.(화)]

□ 아사쿠사 관음사(센소지) 및 이케부쿠로방재관 방문

- 아사쿠사 관음사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일본 불교 문화와 도시 관광의 중심지로 알려진 랜드마크다. 어반스포츠 파크가 자리한 신개발 매립지와 달리, 관음사는 역사적 도시 구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건축 일정에 공간 대비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이케부쿠로방재관은 도쿄도 소방청이 운영하는 시민 체험형 재난 대비 교육센터이다. 실제 재난을 연출해 시민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익히도록 설계된 곳으로, 지진 체험실·화재 대응 체험등을 재난 상황 시나리오 기반으로 체험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에는 지진 체험이 어려워 몸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반면 실제 체험을 통해 재난상황의 심각성과 사실성 느꼈다.

3일차-2025. 10. 29.(수)

□ 도시재생 현장(미야시타파크) 방문

- 도쿄 시부야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형 공원 겸 복합 상업·문화 공간으로, 공원 자체가 3층 높이의 구조물 위에 세워진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 상업시설, 숙박시설, 광장, 운동시설이 하나의 수직구조에 결합된 대표적인 도심 입체 재생 프로젝트로 꼽힌다.
- 노후한 미야시타 공원을 전면 재개발을 위해 **민관 협업 개발의 모델**로 꼽히는데 시부야구가 부지를 관리하고, 민간기업이 시설운동을 담당하여 공공성 유지와 수익 창출 사이 균형을 맞춘



4일차-2025. 10. 30.(목)

□ 동경도 도로개발 및 유지관리공사(주차장 운영 사례공유) 방문

- 도쿄의 주차장 운영 방식은 고밀도 도시 구조와 제한된 지상 공간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공공·민간이 협력적으로 운영하며, 주차 수요 관리와 교통 혼잡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쉬운 점은** 우리 공사의 운영방식을 비교했을 때 시설이나 제도가 발전했다는 점을 찾기 어려웠다.

<<총평>>

□ 새로운 경험과 모두와 함께 하기에 더욱 행복했던 시간

- 서로 다른 부서·직급·업무의 직원들로 구성되었기에, 가기 전에는 먼저 함께 하는 동행이 어색하여 걱정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난 후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좋았던 부분은 결국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이 귀한 경험하게 해주신 사장님, 본부장님, 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글로벌 정책추진 국외연수 결과보고

■ 개 요

- 연수기간: 2025. 10. 27.(월) ~ 10. 31.(금) / 4박 5일
- 장 소: 일본(도쿄)
- 보 고 자: 성화진(기술6급)

■ 1일차

○ 아리아케 어반스포츠파크

- 아리아케 어반스포츠파크는 2020 도쿄올림픽 스케이트보드 종목 경기장으로 조성된 이후, 대회 종료 후 시민 참여형 복합 스포츠·레저 공간으로 재탄생한 시설이다.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개방된 이 공간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심형 스포츠 문화를 실현하고 있었다.
특히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민·관 협력 모델은 시설의 전문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며, 지역사회 참여와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어반스포츠파크는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며, 향후 우리 공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방식에도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우수사례로 느껴졌다.

■ 2일차

○ 센소지 및 아사쿠사 지역

- 센소지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쿄의 대표적인 문화 명소이다. 주변 아사쿠사 상점가는 전통 상점과 현대 상권이 조화를

이루며, 보행자 중심의 거리 정비가 매우 잘 이루어져 있었다. 현장을 보며 과천 중앙공원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어지는 굴다리 주변 공간이 떠올랐고, 이와 같은 보행 친화적 환경 개선이 우리 지역에도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노점과 상가 간 간판·색채·조명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어 ‘지역 정체성과 미관의 조화’가 잘 실현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디자인 관리 방식은 과천의 도시 정비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느껴졌다. 공공화장실, 음수대, 안내표지 등 시민 편의시설 또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어,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에서도 질서 있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케부쿠로 방재관

- 도쿄소방청이 운영하는 이케부쿠로 방재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진, 화재, 응급처치 등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재교육시설이었다. 특히 지진 발생 상황의 실감 나는 재현과 화재 시 연기 대피훈련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교육은 연령과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점이 돋보였다.

이번 체험을 통해 방재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안전 대응 능력을 체득하도록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이어야 함을 느꼈다. 또한 시민회관의 구조가 복잡하여 이용객이 대피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시설의 사례를 참고하여 화재 시 바닥 대피 유도선이나 시각적 안내 표시를 추가로 설치한다면 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시부야 타임스퀘어, 미야시타 공원

- 도쿄의 중심 상업지인 시부야는 유동인구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과 보행 동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도시 내 혼잡이 잘 통제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도시 중심부의 상업지역 운영 모델로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느껴졌다.

특히 미야시타 공원은 2020년 재개발을 통해 쇼핑, 호텔, 스포츠, 공원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시설로 새롭게 조성된 공간이었다. 옥상에 조성된 녹지공간에서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도심 속에서도 여유와 활력을 제공하는 도시형 공원의 모범사례로 보였다.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 옥상 공간을 활용해 녹지와 여가공간을 확보한 점은 도시 환경 개선뿐 아니라 이용자 만족도와 체류시간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도심 속 녹지 복합화 모델은 향후 우리 공사의 공원 운영 시, 공간 활용과 시민 휴식 환경 조성을 병행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 사례로 판단된다.

■ 3일차

○ 메이지신궁, 히라주쿠, 아자브다이힐즈, 록본기힐즈

- 3일차에는 일본의 전통신사, 상업문화거리, 초고밀 복합개발지 등 다양한 공간 유형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메이지 신궁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울창한 숲과 고요한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어, 도심 속에서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변화한 거리에서 조금만 이동해도 완전히 다른 정서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히라주쿠 일대에서는 상업활동과 문화활동이 보행동선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었으며, 보행자 중심의 거리 활성화가 매우 잘 구현되어 있었다. 보행자 흐름이 상권과 문화공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활기찬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아자브다이힐즈는 복잡한 도시 구조 속에서도 옥상과 테라스형 녹지를 확보하여 고밀 도시 환경에서도 여가와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특히 아자브다이힐즈에서 바라본 도쿄타워의 조망은 공간의 개방감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느껴졌다.

록본기힐즈는 ‘생활·업무·여가’가 하나의 복합공간 안에 조화롭게 구성된 대표적인 도시형 복합시설로, 단일 기능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이용층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공간구조가 인상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전통과 현대, 자연과 상업이 균형 있게 설계된 도시공간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우리 기관이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일차

○ 도쿄도 중앙구 공영주차장, 긴자거리, 오다이바 아쿠아시티

- 도쿄 중앙구 공영주차장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총 1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이 중 절반인 50면은 지정주차 구역으로,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하며 최대 2년까지 장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운영 인력은 외주 용역 업체가 담당하고 있었으며, 주차요금 관리·현장 안내 등 일상적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주요 설비 관리는 구청이 직접 책임을 지는 구조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관리체계가 인상적이었다.

긴자거리와 아쿠아시티는 보행자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 효율적인 교통·주차 운영, 상업과 여가의 조화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 5일차

○ 공항이동

- 5일차에는 연수 일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방문지와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 총평

○ 2025년 글로벌 정책추진 국외연수 마무리

-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공공시설과 도시 공간이 시민 중심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편의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느꼈다.

특히 도심 속에서도 녹지와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자 동선을 세심하게 설계한 점이 인상 깊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기관의 체육시설 운영과 공공공간 개선에도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용
성 명	신정련
소속/직위	시민회관체육운영처 / 체육5급
연수기간	`25. 10. 27.(월) ~ 30.(금)
연수국가 및 도시	일본 도쿄
연수목적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탐구
주요내용	이케부로 방재관 / 미야시타파크 / 동경도 도로개발 및 유지관리공사 / 도쿄타워 / 아리아케 어반스포츠파크
연수내용	- 실제 재난 상황을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 시키는 모델 - 오래된 역사 및 구도심의 노후화를 문화,스포츠 공간을 복합화하여 성공적인 도심재생 사례 - 동경도 도로개발 및 유지관리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차장관리업체 방문하였으며 민간운영 업체 보다 저렴한 가격 및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주차타워를 세우지 않는 특성이 있음 - 도쿄의 상징적인 타워로써 브랜드화 및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킨 사례임 - 2020도쿄올림픽 스케이트보드 정식경기가 열린 장소를 시민이 건강,복지,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재편 됨
향후 활용 및 느낀점	- 도심재생 및 경기장 시설의 활용을 위한 많은 노력이 보였으며 공공의 성격보다는 민간위탁·공공기관 공동운영 모델이 도입되어 시민프로그램 ,이벤트공연, 지역축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구조의 다양성을 볼 수 있었음 - 시민이 직접 사용하는 체육,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투자 유도 및 도시브랜드 가치상승이 되는 경제적 효과 및 노후지역의 기능회복 신도심의 기능확장을 유도하였음 - 과천시에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체육시설 확충 시 시민들이 건강, 복지, 문화 복합형 모델 적용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며 기존의 체육시설의 유허 공간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독특하고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 필요성을 느낌

과천도시공사 우수직원 국외연수 보고서

경영기획처 안경선

□ 개 요

- 연 수 명: 과천도시공사 우수직원 국외연수
- 행사기간: 2025.10.27.(월) ~ 10.31.(금)
- 장 소: 일본 도쿄
- 인 원: 안경선 등 10명

□ 세부내용

- 1 일 차: 2025.10.27.(월)
 - 일본은 나에게서 마음이 아픈 곳이다. 2024년 이맘때 일본여행을 예약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발 이틀 전 취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고 올 수 있었다” 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날씨는 너무 좋았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날까지만 해도 비가 왔다고 하는 데 한국보다 따듯했다.
마침 우리가 도착한 날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일 일정과 겹쳐 경호 문제로 가이드가 걱정을 하기도 했다.
 - 점심: 마루신 돈가스
장어 그림이 크게 붙어 있었는데 돈가스가 유명하다고 해서 약간 의아했다. 맛은 기대보다는 조금 아쉬웠고, 솔직히 한국의 ‘최고당’이 더 맛있었다.
 - 공식 첫 방문 livedoor URBAN SPORTS PARK

첫 번째 공식 방문지는 도쿄도 소유 부지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스포츠 공원이었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쿄도 소유 땅 + 민간 설치시설
- ② 땅과 시설이 동경도 소유
- 운영은 모두 민간에서 한다.

도쿄도에서 땅을 10년간 임대하고 수익의 발생하면 3%를 낸다. 별도의 지원금은 없다. 이곳은 시민들이 스포츠와 음식을 함께 즐기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도록 구성되어 있다.

도쿄올림픽 스케이트보드 경기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용료는 약 1,500엔이다. 월드 스케이트보드 게임, 일본선수권 대회도 개최된다.

올림픽 당시 '아오미' 지역의 농구코트를 '아리아케'로 이전하여, 노을과 야경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배치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건물은 비를 튕겨내는 구조였고, 볼더링 시설도 갖추고 있었다.

가장 놀랐던 것은 피클볼 이용료가 시간당 약 8,000엔, 주말은 12,000엔 정도로 매우 비쌌다는 점이다.

민간 사업자 선정 시 부동산·스포츠·미디어 3개 분야 컨소시엄 2곳이 경쟁했고, 보조금 없이 수익 가능성과 지역 활성화 기여도를 높게 평가받아 지금의 운영자가 선정되었다.

현재 수익성이 가장 높은 시설은 '몬스터 정글(어린이~성인 대상)'이며, 적자 보전을 위해 명명권(네이밍 라이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 숙소: 빌라폰테누 그랜드 도쿄 아리아케

도쿄 올림픽 때 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했다고 한다.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었다.

- 저녁은 호텔식으로 마무리했고, 새벽부터 움직였던 탓에 꽤 피곤한 하루였다.

○ 2일차: 2025.10.28.(화)

- 센조지 절, 아사쿠사 신사

약 600년 전에 지어진 도쿄의 대표 사찰로 연간 3,0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스미다강에서 관음보살상을 발견한 어부 형제인 히마노우마형제와 절을 세운 도쿠히를 신으로 모신 곳이다. 이곳에서 둘째의 수능 합격, 가족의 건강, 회사의 평안을 빌었다. 대웅전 앞 향로에서는 향을 몸에 쏘면 아픈 곳이 낫는다고 해 열심히 향을 맡았다. 나카미세 거리에는 기모노를 입은 외국인들이 많았고, 일본 특유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 **점심 KURA 초밥집**

무한리필 초밥이라고 알고 열심히 먹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무척 당황했다.

- **이케부크로 방재관**

도쿄 소방청이 운영하는 체험형 방재 교육 시설

소화·연기·지진·응급처치 등 다채롭고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진체험이었다.

일본은 활화산이 111개나 있고,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해 훈련한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지진 강도와 실제 체험은 완전히 달랐고, 진심으로 놀랐다.

연기 체험도 불빛 없이 비상구를 찾아야 해 실제 상황의 긴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시부야 미야시다 공원**

옥상정원·쇼핑몰·호텔이 결합된 복합공간

공원이 쇼핑과 연결되어 있어 걷다가 쉬고, 또 쇼핑하다가 쉬는 구조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자연·레저·쇼핑이 동시에 가능한 도심형 공원이었다.

- 저녁: 시부야에서 불고기

일본의 음식은 전반적으로 짜고 달고 간장 베이스의 맛이 강했다.

○ 3일 차: 2025.10.29.(수)

- 메이지신궁

명치유신을 이끈 명치천황과 황후를 모신 곳

넓고 고요하며, 고목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경이로웠다.

가이드 설명 덕분에 일본 역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명치유신: 일본이 막부체제를 버리고 서양식 국가로 전환한 대변혁)

- 점심 하라주쿠 쪽 일본라면

일본음식의 특징 전체적으로 음식이 짜고, 달고를 다시한번 느꼈다.

- 다이칸야마 T-SITE(츠타야)

서점·디자인숍·라이프스타일 매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특히 '쉐어라운지'가 인상적이었는데, 약1,600엔에 음료·스낵·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가 중심이 아니라, '서점+라이프스타일 공간'에 스타벅스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구조였다.

고급지고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이었으며, 우리 공사도 이런 공간을 참고해 쉐어라운지를 통한 수익·편익 창출을 상상해보게 되었다.

구도심을 이런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 아자부다이힐즈

모리 JP타워(지상 64층)

고급 오피스·레지던스·레스토랑·쇼핑센터 집합

도쿄타워가 한눈에 보이는 뷰가 압도적이었다.

기획~준공까지 34년이 걸렸고, 공사비만 5조 6천억 원.

‘힐즈’는 모리빌딩의 복합 개발 브랜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 롯본기힐즈

모리빌딩이 만든 또 하나의 초대형 복합단지
54층 랜드마크 타워, 고급 쇼핑·주거·미술관 등 도심을 재구성한 대표 사례다.

모리가즈오의 도시재생 철학, 업무·상업·문화·주거를 결합하여 도시를 재탄생시키는 전략이 인상 깊었다.

우리 공사도 이런 관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 저녁: 선술집 코스요리

죽이 특히 맛있었고, 친절하 서비스는 기억에 남는다.

○ **4일 차: 2025.10.30.(목)**

- 츠키지 제2주차장(구청 관리)

구청에서 관리, 10개 주차장 중 하나

108면 규모, 약 50면 정기권(40,000엔)

30분당 200엔

운영은 용역업체가 담당하며 3명 파견, 1년 단위 갱신

요금수입은 모두 구청 수입, 파손 시 구에서 수리

사전정산 없음, 저공해차량 할인

지역별 요금 차등(긴자 등 고급지역은 더 비쌈)

2년마다 추첨

차량 파손은 기본적으로 개인 책임, 자연재해도 개인 책임

전기차 충전소는 10곳 중 3곳

일본은 길가 주차 문화가 없음

전체적으로 시설은 우리가 더 나은 부분도 많았다.

다만 일본은 카드가 안되는 곳이 많고, 동전을 고집하며 변화 속도가 매우 느려 답답하기도 했다.

자전거 주차장에 요금을 받는 점은 신선했다. (2시간 무료, 이후 시간당 100엔)

- 츠키지 시장

1935년 개장, 오전 8시~14시 운영.

메론이 유난히 맛있었다. 일본 계란말이는 매우 달고 폭신했다.
전통과 장인 분위기가 강했고, 외국인이 정말 많았다.

- 점심: 일본 정식

먹었던 음식중에 가장 괜찮았다.

- 긴자거리

명품거리에서 자유시간을 가졌고 쇼핑도 조금 했다.
긴자6의 츠타야에도 방문했지만,
비교해보면 다이칸야마 T-SITE가 훨씬 넓고 여유로웠다.

- 우에노 사코라키 아타리

1938년 쇼와 시대 목조 주택 3채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긴자와 달리 조용하고 소박하여 일본의 오래된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카페·수제맥주 전문점 등이 있어 각자 취향대로 즐길 수 있었고, 카페
를 나와 일본의 거리를 걸었고 '유아케 단단'이라는 저녁노을 계단에
서 사진도 찍었다.

- 네즈신사

여러 신을 함께 모시는 일본의 신사 문화가 흥미로웠다.
붉은 토리이 길이 아름다웠고,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곳이었다.

<일본에서 느낀점>

일본이 처음인 나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많은 업무와 가정을 잠시 떠나야 한다는 미안함도 있었지만,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배움을 넘어 다른 문화를 보고 이해하는 경험은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다. '언젠가 일본에 가봐야지' 하고 마음속에서만 머물던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도 나에게는 큰 의미였다.

이 낯선 문화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조직의 '다름'에 대해서도 떠올렸다.

우리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한다. MZ세대에게 우리가 어렵고, 우리도 그들이 어렵다. 서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본에서 느꼈던 문화적 차이처럼, 세대 간에도 각자의 방식과 가치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야 한다. 그렇다면 출발점은 명확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부정하면 갈등이 되고, 다름을 인정하면 관계가 열리기 시작한다. 세대가 다르면 바라보는 시각, 일하는 속도, 소통 방식도 다르다.

우리가 할 말, 그리고 나아갈 방향,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

"내 기준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서로에게 필요하다. 상대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소통 방식의 다양성 인정

누군가는 대면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메시지가 더 편하다. 어떤 방식이든 '전달되면 된다'가 아니라, 상대가 편한 방식으로 대화하자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기

MZ는 빠르고 효율적이다. 기성세대는 경험과 맥락을 알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자

업무 협업 시 명확한 기준 만들기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정, 역할, 책임, 목표를 명확히 하면 세대 차이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만들기

서로를 인간적으로 알고 나면 오해가 줄어든다. 작은 대화, 짧은 칭찬 한마디, 감사 표현이 조직 문화를 바꾼다.

다르기에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조직의 힘은 같음이 아니라 '다양함'에서 시작되고 그 부분이 서로 보완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이번 일본 연수가 우리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기회가 되었고 함께여서 즐거웠다.

끝으로 준비해주신 우세림 대리님과 일본연수를 마련해주신 사장님과 본부장님, 빈자리를 채워준 재무부 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글로벌 국외연수』
결과보고(개인후기)

1 연수개요

- 기 간: 2025. 10. 27.(월)~10. 31.(금) / 4박 5일
- 연수국가: 1개국(일본 /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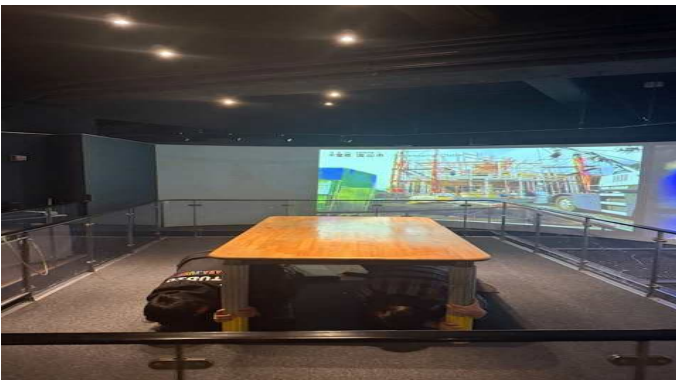
2 연수목적

- 국내 스포츠의 자산가치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습득
- 기타 선진스포츠 정책 자료 수집을 통해 스포츠 발전 자료로 활용
- 문화 · 시설 · 체육 자료 수집 등

3 연수소감

2021년 동경 올림픽이 열렸던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쿄의 스포츠 웰니스를 보는 것으로 시작된 4박 5일의 도쿄 여행은 기대 이상으로 행복한 여행이었으며,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역사 속에 현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녹아있다는 것이었음 특히 시모기타 철로 거리는 근대의 굵직한 역사를 보여주는 도쿄의 낡은 건물, 야경까지 낭만적이었음 이번 연수를 통해 체육시설 활용방법 및 공공기관의 관광전략, 문화의 보존 및 현대화 접목등 을 체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도정에 무엇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매우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담당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결과 보고(개인후기)를 마칩

- 연수기관 방문 사진





2025년도 글로벌 정책추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1. 연수 목적

일본 도쿄의 복합문화공간, 방재시설, 공공 체육 및 주차장 운영 사례를 통해 민관 협력형 도시공간 운영 모델과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벤치마킹하고, 과천 및 신도시 개발 등에 적용 가능한 문화·복지·안전·교통 분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기관별 연수 내용 및 주요 시사점

2-1: livedoor URBAN SPORTS PARK (TOKYO ARIAKE)

- ▶ 개요: 도쿄 올림픽 이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도심형 스포츠 복합공간
- ▶ 내용:
 - 스케이트보드, 클라이밍, 3X3 농구 등 청년층 중심의 스포츠 활동과 식당시설, 브랜드 매장, 이벤트 등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여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도시문화 플랫폼’을 구현함.
 - 민간기업인 Livedoor가 브랜드 및 홍보를 담당하고, Urban Sports Co.가 운영을 맡는 민관협력형 모델로 운영되고 있음.
- ▶ 주요 시사점
 - 도시 유휴부지 활용: 올림픽 부지를 도심형 스포츠 공간으로 재활용한 사례로, 국내 신도시 개발지 공터나 공공시설을 청년문화·스포츠 공간으로 전환 가능
 - 민관협력 운영모델: 공공기관은 부지·기반시설 제공, 민간기업은 운영·관리·콘텐츠 개발 전담 → 공공시설 효율적 활용과 자생적 운영체계 구축 가능
- ▶ 종합 의견
 -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도시문화·스포츠·커뮤니티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평가됨. 민간 주도의 콘텐츠 개발과 공공 인프라 결합 모델은 국내 신도시, 청년문화공간, 지역재생 프로젝트에서 벤치마킹 가능.

2-2: 다이칸야마 T-SITE (Daikanyama T-SITE)

- ▶ 개요: 서점, 카페, 음악, 디자인 브랜드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 산업이 협업한 복합문화공간.
- ▶ 내용:
 - 단순 책 판매 공간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문화적 경험 중심 공간
 - 서점(Tsutaya Books), 카페, 디자인샵, 펫샵, 식당 연계 → 방문객이 하루 여가 완성 가능
- ▶ 주요 시사점
 - 복합문화공간 성공 사례: 도시 상징 브랜드로 발전, 국내 신도시 내 유사 플랫폼 조성 가능성
 - 민간주도형 기획 중요성: 공공 기반 제공만으로는 부족, 민간 창의적 기획·디자인 결합 필요
- ▶ 종합 의견
 - 상업·문화·휴식이 융합된 공간으로 시민 생활문화 수준 향상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국내 도시재생, 도심활성화, 문화복합시설 기획 등 참고 가능한 우수 사례라 판단된다.

과천에 부는 좋은 변화

2-3: 도교도 공영주차장 운영사례

- ▶ 개요: 민간위탁 운영을 결합한 효율적 공영주차장 관리 사례.
- ▶ 내용:
 - 입출차 자동인식, 유·무인 주차장 관리
 -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비 절감과 서비스 품질 확보.
- ▶ 주요 시사점
 - 민간위탁 운영의 효율성: 관리·정산 업무를 민간에 맡기고, 시설 유지보수는 공공이 담당하여 운영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
 - 위탁업체 운영 구조: 10여개 주차장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수입은 전액 도교도로 납입
 - 정기관 운영: 전체 주차장의 약 50%는 정기관 지정좌석 운영, 2년 단위 계약, 6개월 전 접수 및 추첨제 적용으로 공정성·편의성 확보
 - 요금체계: 조례 기반 요금 범위 설정하고, 주변 민간 주차장과 유사한 가격 책정으로 민간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시장 조화
- ▶ 종합 의견
 - 도교도 공영주차장 운영은 민간위탁과 공공관리의 효율적 결합 모델로 평가된다.
 - 주차장 수입은 전액 도교도에 귀속되며, 민간 용역업체는 관리 및 정산 업무만 수행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도교도가 전담함으로써 재정 안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
 - 정기관 지정, 추첨제 접수, 요금 조례 적용 등 체계적 운영은 시민 편의와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하며, 주변 민간 주차장 요금과 연계하여 시장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3. 종합 분석

- ▶ 복합문화·스포츠 공간: 민간 주도 창의적 기획 + 공공 기반 → 시민 참여와 지역 활성화 가능
- ▶ 공통 시사점: 민관협력,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문화·스포츠·교육 융합 → 도시 생활 질 향상

4. 기대효과

- ▶ 시민 삶의 질 향상
 - 복합문화공간·체험형 스포츠 시설을 한 곳에서 경험 가능
 -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건강 향상
- ▶ 공공시설 효율적 운영
 - 민관협력 운영 → 지역사회 연계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 품질 확보
 - 스마트 관리 및 데이터 기반 정책 → 시설 활용 극대화

2025년도 글로벌 정책추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25. 10. 27.(월) ~ 2025. 10. 31.(금) / 일본 도쿄)

경영지원실 인사부 이새배

○ 연수 일정 요약

일 자	방문 장소
1일차 (25.10.27.)	Tokyo Sports Wellness Village Corporation (livedoor URBAN SPORTS PARK)
2일차 (25.10.28.)	아사쿠사, 센소지신사, 이케부쿠로 방재관, 시부야역세권 재개발 구역, 미야시타파크 등
3일차 (25.10.29.)	메이지신궁, 다이칸야마 T-SITE, 아자부다이힐즈, 롯폰기힐즈 등
4일차 (25.10.30.)	Tokyo Metropolitan Road Development & Maintenance Corporation, 긴자, 네즈신사

○ 주요 장소 별 시사점

① Tokyo Sports Wellness Village Corporation (livedoor URBAN SPORTS PARK)

- 레거시(기존 시설·장비)의 적극적 재활용: 올림픽 후 경기장, 매트리스, 관중석 의자, 냉방설비 등을 철거 후 재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기발 시설 운영 ⇒ 운영비 절감, 시설 투자 효율화
 - ▶ 행사, 대회 이전 '계획적 재사용 시나리오(가칭)'을 수립하여 운영비 절감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 가능

② 이케부쿠로 방재관

- 실감형 장비 활용한 체험기반 교육: 동일본 대지진, 화재, 소화 등 방재 체험 활성화
 - ▶ 외국인/엄마·아빠/나이트(야간 상황) 등 대상별, 상황별 체험을 세분화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③ 다이칸야마 T-SITE

- 커뮤니티 허브 역할의 '숲속의 도서관(A Library in the Woods)'
 - ⇒ 한 공간을 '문화적 큐레이션이 된 경험'의 무대로 설계
 - ▶ 큐레이터의 개념을 적극활용한 카테고리별 전담 컨시어지 운영
 - ▶ 서점, 카페, 편의점 등이 있어 독서+휴식+만남 가능
 - ▶ 취향(예술, 라이프스타일, 도서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리미엄 공간

④ 미야시타파크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을 연결해 주는 입체 공간
 - ⇒ 도심 속 스포츠, 여가, 녹지, 문화(쇼핑, 이자카야 등)가 공존하는 장소
 - ▶ 단순 공원을 상업시설, 호텔, 스포츠, 이벤트 광장 등 복합적인 용도로 확장
 - ▶ 지역 랜드마크화를 통해 젊은 고객 유인

⑤ Tokyo Metropolitan Road Development & Maintenance Corporation (TMRDMC)

- 용업업체 위탁 관리 + 공무원 감독 체계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구조
 - ⇒ 업체계약 갱신(1년씩), 정기주차권 추첨(2년간 사용, 만료 6개월 전 대기자 등록)제도 통한 공정성 확보
 - ▶ 무인화가 한국대비 활성화되지 않아 대부분 24시간 유인관리(용역), 소소한 할인 제도(전기차 등)



○ 제안 사항

① '복적복적'에 큐레이션 개념 도입하여 카테고리 전문성 강화

- 현재 구분없이 무작위로 배치되어 있는 도서를 카테고리에 따라 재 배치
- 역사, 인문, 교양, 경제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 강화
- 한 칸은 '과천도시공사' 섹션으로 분류, 발간 도서, 간행물 등 배치하여 공사 정체성을 널리 홍보



② 유희공간에 '과천도시공사 역사 사진관' 조성

- 과천도시공사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사진관 공간 조성
- 신입직원 입사시 또는 외부 손님 방문시 투어 공간으로 활용 가능
-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공단/공사 사진 공모 등을 통해 관심 및 참여 유도 가능



[일본]국외연수 결과 보고

일본 내 선진지 사례를 체험하고 우리 도시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도입과 관련한 방안 탐색에 대한 보고임

□ 개 요

- 연수기간: 2025. 10. 27.(월) ~ 10. 31.(금) / 4박5일
- 연수장소: 일본 / 도쿄
- 연 수 자: 불링골프부 행정 6급 이호연
- 연수일정 및 활동

구 분	견학 및 장소	견 학 결 과
1일차	- 동경도 스포츠 문화재단 • 체육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우수사례 시찰	-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사용 되었던 기자재를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의 모범사례
2일차	- 아사쿠사 - 이케부쿠로 방재관 - 미야시타파크, 롯본기힐즈	- 이케부쿠로 방재관은 재난 대비 교육 시설로 지진, 화재상황을 체험
3일차	- 다이칸야마 티사이트 - 메이지 신궁 - 하라주쿠 - 아자부다이힐즈 - 롯본기힐즈	- 신규 복합단지 아자부다이힐즈는 도쿄타워를 10분거리로 가까운 뷰를 볼 수 있고 롯본기힐즈는 도시경관속 도쿄타워를 볼수있음
4일차	- 중앙구청 츠키지 제2주차장 • 공공자산 유지관리 • 주차요금, 주차장 종류 등	-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실용적 공공시설 관리 노하우를 엿볼수 있었음
5일차	- 나리타 공항 출발	

□ 우수사례

○ 동경도 스포츠 문화재단 (아리아케 어반 스포츠 파크)

- 육상(풋살) 경기장과 고급주택이 인접되어 소음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소음 발생 되는 행사 전 주민들과 약속된 신호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전 공지
➔ 민원에 대한 적극대응 및 상호 신뢰관계 유지
-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 후 볼더링 클라이밍, 스케이트 보드파크, 3×3농구코트 등의 기자재를 이동 설치하여 예산절감과 자원순환의 모범이 되는 사례
- “빈터를 모두 함께 놀 수 있는 성지로~” 모토 답게 카페와 푸드몰 매장들을 정비한 복합형 스포츠 레저 시설

○ 이케부쿠로 방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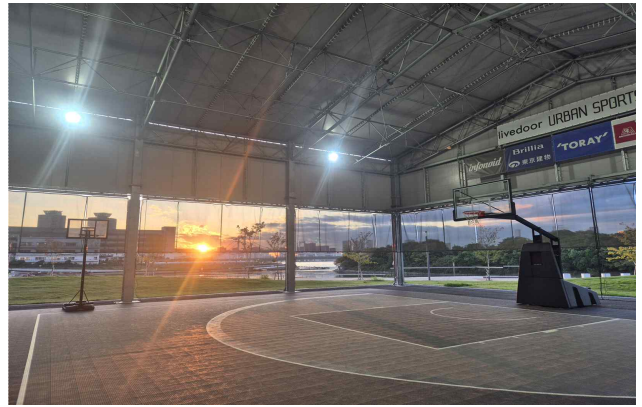
- 지진강도 체험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우수
- 화재교육 시 강조된 4가지 원칙 ➔ 반복 강조 교육 필요
 - 다른 사람을 밀지 않는다.
 -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는다.
 - 떠들지 않고 조용히 한다.
 - 되돌아가지 않는다. 불에서 벗어난다.

□ 견학 후 느낀 점

- 관광으로만 접했던 일본을 견학으로 방문해 보니 올림픽 체육기자재를 활용한 실용성과 도시속 실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설비가 잘 갖춰져 있다.
- 지진 시뮬레이션, 소화기 사용, 연기대피 훈련등 실제 상황을 재현한 프로그램 특히 지진을 체험하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몸소 느꼈고, 아이들 눈 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고 느꼈음.
- 근무지인 종합안내데스크에서 접목할 점은 고령 회원들이용 시 불편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 및 개선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침착하게
밀지않는다 ⇒ 달리지 않는다 ⇒ 말하지 않는다 ⇒ 돌아가지 않는다
원칙을 실현하여 이용객들의 대피와 피해를 최소화 해야된다는 점을 알게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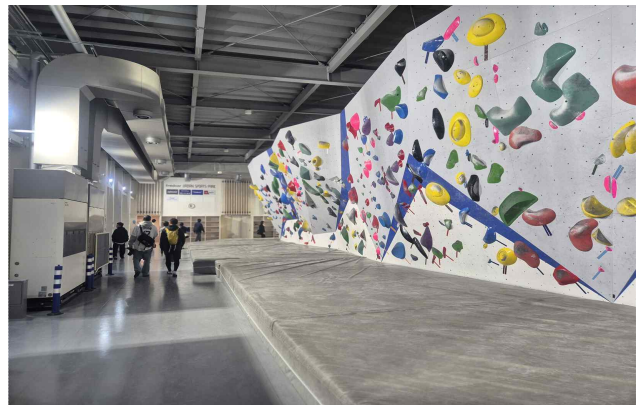
아리아케 이반스포츠 파크 정글집



3×3 농구코트



스케이드 보드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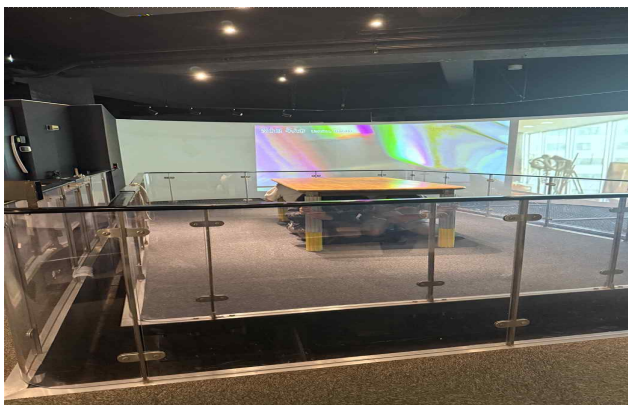
볼더링 클라이밍



방재관 소화기 체험



방재관 연기대피 체험



지진체험



중앙구청 주차장

2025년도 글로벌 정책추진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025. 11. 10, 장연주]

□ 주요 방문지 및 느낀 점

○ 아리아케(livedoor) 어반 스포츠센터

- 아리아케 어반 스포츠센터를 방문하여 도쿄도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시설의 민간 운영사 대표로부터 시설 운영 현황과 주요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2개의 구역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한 개의 구역은 2020년 도쿄올림픽 당시 사용된 스케이트보드 경기장을 활용하여 조성된 복합 스포츠시설로,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된 3x3 농구코트를 이전 설치하고, 볼더링 시설을 재현하여 하나의 스포츠 구역을 구성하였습니다. 다른 구역에는 카페, 음식점, 스포츠용품점 등 상업시설과 함께 피클볼 코트, 피트니스 센터(몬스터짐)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운영 구조는 도쿄도가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지원금 없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며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형태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초기 운영 적자 해소를 위한 명명권 판매 방식이었습니다. 당초 명칭은 ‘아리아케 어반 스포츠센터’ 이지만, 현재 ‘livedoor’ 기업에 명명권을 팔아 ‘livedoor 어반 스포츠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명권 계약기간은 5년, 민간사업자의 운영 계약은 10년으로, 초기 2~3년간의 적자를 명명권 수익으로 보전하고 이후에는 운영수익으로 수익 구조를 안정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수익 발생 시 일정 비율을 도쿄도에 환원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명명권 판매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제한되어 있으나, 도쿄도가 이를 허용하는 대신 수익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부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항은 과천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 없이 운영수익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해당 사업장의 이용료가 시간당 8,000엔~12,000엔으로 과천 시민회관 대비 약 20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높은 경제성을 전제로 가능한 구조로 보입니다.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우수한 입지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초기 적자 해소 방안을 도쿄도에서 허용하였으며, 도쿄도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을 방치·철거하지 않고 고급 스포츠센터로 조성하여 도쿄 스포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을 견학하고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좋은 협업 사례라고 느꼈습니다.

- 현장사진

	
스케이트 보드장 (2020 도쿄올림픽 장소)	3*3 농구장 (2020 도쿄올림픽 기구)
	
몬스터짐(최대 수익시설)	현장에서 설명하는 모습
	
스포츠센터 내 상업시설	스포츠센터의 별도 오토바이 주차장

○ 도쿄도 공영주차장(긴자 인근)

- 도쿄도에서 유지·관리 중인 긴자 인근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도쿄도청 담당자로부터 운영 방식 및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도쿄도 소유의 공영시설로, 도쿄도가 직접 매출 및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소 등 단순 유지관리 업무만을 용역 형태로 위탁하고 있었습니다. 주차장별로 운영 계약 방식은 상이하며, 완전 무인 운영 방식과 유인 운영 방식이 병행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구조는 국내 공영주차장과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진 차이점은 별도의 자전거 주차장 운영이었습니다. 도쿄도는 자동차 주차장과는 별도로 자전거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본 내에서 자연스러운 도시 문화로 보였습니다.

도쿄도의 공영주차장 운영체계는 전반적으로 과천시의 방식과 유사하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유료 운영, 그리고 높은 주차 요금 수준이 주요한 차이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전거 주차에 일정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장기 방치 자전거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과천에 도입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대한 국민 정서 및 문화적 수용성을 고려할 때 거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현장사진



동경도 긴자 인근의 공영주차장 모습
(자동차 구역)



동경도 긴자 인근의 공영주차장 모습
(자전거 구역)

2025년도 글로벌 정책추진 국외연수 개인 결과보고서(일본/도쿄)

- 소속: 경영지원실 인사부
- 직급/성명: 행정6급 정옥환
- 연수기간: 2025. 10. 27.(월) ~ 10. 31.(금)
- 연수국가/지역: 일본 도쿄

I. 연수목적

- 일본 도쿄의 도시재생, 방재, 문화 및 교통 관련 선진사례를 직접 학습함으로써, 공사의 조직문화 혁신과 업무 효율성 제고
- 지방공기업으로서 글로벌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실무적 통찰력 확대

II. 주요 연수 내용

10.27.(월)

Tokyo Sports Wellness Village Corporation 방문

도쿄의 대규모 복합체육공간을 방문하여 민간자본과 공공의 협력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 방식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용자 중심의 스포츠 복지정책과 시설운영 효율화 시스템은 공사의 체육 시설 관리 업무에도 직접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10.28.(화)

아사쿠사, 센소지신사, 이케부쿠로 방재관, 시부야역세권 재개발 구역, 미야시타파크

아사쿠사·센소지신사에서서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시공간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케부쿠로 방재관에서는 시민참여형 방재교육 시스템과 재난대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시부야 재개발 구역과 미야시타파크에서는 민간기업과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노후 지역을 첨단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과정을 학습하였다.

특히, ‘옥상공원-상업시설-문화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는 지역활성화의 우수 모델로 인상 깊었다.



10.29.(수)

메이지신궁, 다이칸야마 T-SITE, 아자부다이힐즈, 롯폰기힐즈

도시 내 녹지보존과 문화유산 관리방식의 중요성을 느꼈고, 다이칸야마 T-SITE는 ‘책과 커뮤니티’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유도하는 탁월한 공간기획이었다.

아자부다이힐즈와 롯폰기힐즈는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 속 도시’를 구현한 대표적 사례로, 상업·주거·문화가 통합된 도시재생 모델의 실행력과 디자인적 완성도가 인상적이었다.



10.30.(목)

Tokyo Metropolitan Road Development & Maintenance Corporation, 긴자, 네즈신사

도쿄도 도로개발 및 유지관리공사를 방문하여, 도로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시스템과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청취하였다.

긴자 변화가에서는 공공디자인과 상업환경의 균형,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가 인상적이었고, 네즈신사에서는 지역의 역사·전통과 현대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문화 관리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Ⅲ. 연수에서 느낀 점

이번 연수를 통해 일본의 공공시설과 도시 인프라가 “시민의 생활 품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

특히, 방재·체육·교통·문화시설 등 각 영역이 단순한 행정 관리 대상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고 활용하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배울 만 하였다. 또한, 모든 시설이 철저한 데이터 기반 운영과 민관협력 구조 위에서 유지된다는 점에서, 우리 공사 역시 체계적인 시설 관리 프로세스 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느꼈다.

Ⅳ. 향후 업무 적용 및 제언

○ 조직 차원의 제언

- 도시재생 및 시설운영 시 민간협력형 모델 도입 검토
-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예: 방재체험, 시설운영 모니터단 등) 활성화 필요

○ 개인 업무 차원의 활용방안

- “참여형 학습문화”를 사내 연수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반영
- 부서 간 협업형 인사관리 프로세스 개선 검토

V. 결론

이번 국외연수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선진 도시의 운영철학과 시민 중심 행정의 본질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도쿄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의 정책 및 행정 운영에서도 보다 열린 시각과 혁신적 접근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도 이러한 학습 경험이 조직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고 실천하겠다.